

한기총 미주 총회 제17대 회장에 심평종 목사 취임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 위해 힘 모을 것

한기총 미주 총회는 지난 25일, 주님의 사랑교회(담임 서사라 목사)에서 제17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평종 목사(오클라호마, 로턴장로교회)의 제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대표회장 취임식을 기졌다.

심평종牧사는 안양대학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신학대학, 대한 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 PCUSA 한인교회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오클라호마 로턴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심평종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고려연방제나 사회주의식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 부흥을 바라보며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기총 미주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설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민승기 목사가 “희망의 장소”(삼상 22:1-2)라는 제목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 총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지난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광화문을 찾아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다. 아들람의 공동체 같았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이 험난한 상황이며,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기총 미주 총회가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경동 목사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기총 미주 총회 회원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장경동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않는 것은 죄”라며 “해의 디아스포라에 산재해 있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정완기 목사, 남가주 한인 목

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 한인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 김희창 목사, 전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원영호 목사, 전 안양대학 총장 이은규 박사, 한기총 미주 총회 발기인 양승걸 목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광야 교회를 위해 헌금했다.

김동욱 기자

美, 종교 자유 위해 교회 등에 3억 7,500만 달러 지원한다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제공

반종교적 편협성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 예배당, 비영리 박해감시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이스트룸(East Room)에서 ‘경제와 공동체의 쇠퇴를 모색하기 위한 시장들의 모임’을 갖고, “공동체 내 유대교 회당, 모스크, 교회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대한 반유대주의와 반종교적 편

협성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 비영리 박해감시단체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억 7,500만 달러(약 4,408억 원)의 연방기금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보장받고, 모든 가정이 안전하며, 모든 아이들이 평안함 가운데 존중을 받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P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반유대주의 폭력과 공격이 증가하고, 특히 2018년 4월 캘리포니아주 풀 웨이와 10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2017년 11월 텍사스 서들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주일예배 도중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도 있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기쁜우리교회 창립3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은퇴·임직식

초대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9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 임직식 후에 기념품 증정과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퇴와 임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복된 예배와 예식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

[임직자 · 추대자 및 은퇴자]
시무장로: 김원국, 강성원, 양승현, 서지철
시무안수집사: 김수경, 장경아, 김윤철, 김세기, 김경자B
시무권사: 권은진, 김난훈, 김영주, 김 안, 김태희, 배신실, 서경옥, 송정순, 이성자, 이해숙A, 이해숙B, 임정혜, 조유진 조혜정, 제정화, 최혜옥 (가나다순)
추대장로: 김인환, 문영준, 오홍석, 이승삼, 황치규 (가나다순)
은퇴시무장로: 장정환, 최염무
은퇴시무안수집사: 장진기
은퇴시무권사: 김복희, 김성희, 김 숙, 노해조, 이해승, 장능선, 조용원 (가나다순)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 (818)662-0400, 팩스: (818)662-0800

교회비전: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올해표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담임목사 김 경 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5대 신임 회장에 정도영 장로 취임

“술선수범으로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제45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기념촬영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정도영 장로)는 지난 26일,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5대 회장으로 정도영 장로의 취임을 축하했다. 정도영 장로는 “성경 말씀을 술선수범으로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남가주한인

장로협의회가 되고자 한다”며 “한 해 동안 겸손과 은유, 오래 참음으로 사역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예배는 수석부회장 이영수 장로의 사회로 증경회장 최성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최 혁 목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엡 4: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혁 목사는 “우리가 일과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 됨을 원하신다”며 “하나님 앞에 선 겸손과 말씀에 순종하는 은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남가주장로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특히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

종식 장로는 축사와 함께 직전회장 김영균 장로에게 공로패를, 신임 회장 정도영 장로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종식 장로는 “한국은 한 때 기도원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지금은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다”며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때에, 남가주장로협의회 한국장로회 총연합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와 전도의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남가주 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 고문 이화룡 장로, 증경회장 김복삼 장로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최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내가 노래하는 이유,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전용대 목사 LA 백송교회 LA 백송교회 찬양 간증 콘서트 개최

LA 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를 초청 찬양 간증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1세대 찬양사역자로 ‘탕자처럼’과 ‘어머니의 성경책’, ‘주여 이 죄인이’, ‘꼭바로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놀라운 사랑’ 등 수많은 대표곡을 한국 교회에 보급한 전용대 목사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했다.

젊은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목함을 짚게 되면서 4차레나 자살을 시도했던 전용대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며 “절망을 딛고 일어서 지금까지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이날 전용대 목사는 특별히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모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독



LA 백송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전용대 목사(좌)와 김성식 담임목사(우)

려했다. “목사님들은 답답하면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 하소연도 하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지만, 사모님은 결혼하는 순간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사모의 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때로는 교회 전도자로 심지어 관리자로 일하십니다. 사모

님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용대 목사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며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동욱 기자

2020 본문이 이끄는 설교 컨퍼런스 “다음 세대를 깨워라”

3월 2일(월)부터 양일간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설교 트렌드를 선도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컨퍼런스(Text-Driven Preaching Conference)’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양일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 해답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미국 내 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성경적 가치관과 타협하는 현실 가운데 성경을 왜곡되지 않도록 선포하고,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육성을 위해 설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사로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설교 대학원 학장인 데이빗 알렌을 비롯해 총장인 아담 그



린웨이, 명 설교자 H.B 찰스, 프리칭 매거진 수석 편집장인 마이클 두두잇 등 탁월한 설교학자와 설교자가 강의를 진행한다. 모든 영어 세션은 한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인 참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세션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세션은 한국 침례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임도균 교수와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담임목사, 세미한 교회 이은상 담임목사가 강의

를 맡아 진행한다. 컨퍼런스 등록은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어 세션 담당자 서경민 목사에게 이메일 aurahelio@gmail.com 혹은 전화 508-826-5145로 할 수 있다.

이인규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1-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1부	2부	3부 (열린예배)	4부 (조용기복사 영상예배)
오전 7:30 본당	오전 9:30 본당	오전 11:45 본당	오후 1:30 권사회실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영어), 11:45(한국어)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일 오후 09:30 / 구 교육관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명예 회복 발판 마련

뉴스M닷컴 상대 명예훼손 97만 5천달러 소송 승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캘리포니아 뉴스리지에 소재한 주안예교회 담임 최혁 목사가 언론 매체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주안예교회는 최혁 목사와 주안에 교회에 관한 허위 보도를 이유로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 소유주인 최병인 씨, 편집인 김기대 목사, 기자인 양재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2017년 9월 13일 LA 카운티 슈퍼리얼 코트 배심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은 판결에서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에 인터넷상에 게재한 주안예교회 및 최혁 목사의 관련 기사 12건을 모두 삭제할 것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입은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약 11억5천만원)와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뉴스M닷컴과 미주뉴스앤조이, 최병인 씨, 김기대 목사, 양재영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9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019년 7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주안예교회는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4년 6월부터 최혁 목사와 주안예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고 이후 주안예교회가 수차례 보도 취소와 정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공격하는 허위 기사를 올려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다”며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안예교회는 또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로 인해 진위여부에 관계 없이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분들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도 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조차 재판결과나 정확한 내용도 확인해보지 않고 기사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교회가 입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안예교회는 최혁 목사가 이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난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이유에 대해서는 “최혁 목사님은 당시 당회의 대표되는 서기 장로에게 사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사직서를 냈고, 소속된 총회와 노회에도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다”며 “만약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당시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빠른 안정을 위해 어

떤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혁 목사는 “결과적으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심려를 끼친점에 늘 죄송스럽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법원 판결대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주안예교회 및 최혁 목사 관

련 기사는 삭제됐으며, 주안예교회는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를 받아 전액을 공익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최병인 씨와 양재영 목사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김기대 목사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기가 어려워 피해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의 밤' 화합과 발전 다짐

1977년 개교 이래 500여 동문 전 세계에서 사역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 동문회(회장 박종희 목사) 주최 '신년 동문의 밤'이 지난 20일, 미주장신대 내에 소재한 '아름다운 동산교회'(담임 최명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의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과 교제 순서로 이어졌다.

38대 동문회장인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는 “미주장신대는 1977년 개교 이래로 배출한 500여 명의 동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며 “동문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선후배 동문 간의 가교 역할”이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어 “38대 임원단은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장신대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협력하고 사랑과 배려,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동문들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



2020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의 밤'

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1부 예배는 동문회장 박종희 목사의 인도로 전우진 전도사의 찬양 인도, 김덕애 목사의 기도, 김일권 목사의 성경봉독(에스라 8:21-23), 이영진 목사의 특별찬양, 이성희 목

사의 설교, 민준기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양기호 목사가 축사를 한 후 고영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추지훈 전도사의 사회로 이어진 2부 만찬과 교제에서는 이상림 목사가 식사기도를, 오충성 목사가 동문 소개를 한 후 유쾌하고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명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이성희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험난한 여정 내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에 의지했다”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준기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목회의 길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며 “동문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이니 힘을 내서 서로를 돕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양기호 목사는 “미주장신대 동문회의 회원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 해 미주장신대 동문회는 신년 '동문의 밤'을 시작으로, 2월 모교 홈커밍데이, 3월과 9월 모교 신앙사경회, 5월과 9월 동문 야유회, 6월 모교 졸업식과 신입생 환영회, 10월 동문회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www.ChurchEveryday.org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e 에브리데이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8:00am - 1부
 9:30am - 2부 / 교육부
 11:15am - 3부 / 교육부/ 향기마을
 1:00pm - 4부 (청년부)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1:30pm Sunday
 (교육관 Education Center)

Wednesday 수요일
 7:30pm - 수요기도회 / Awana (Kidz Church)

Mon~Sat 월요일~토요일
 5:30am - 새벽기도회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2

“선교부흥이 곧 교회부흥이다(2)”

필자가 지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선교 동역을 권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우선 교회 성장시키고 나중에 선교하겠다.”는 말이다. 필자도 오랜 목회기간 동안 늘 하던 말이기도 하다.

전도사 시절 가르치던 대학생이 1년간 휴학하고 학생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선 학교 공부 마치고 졸업 후에 가도 된다.”고 만류하며 지도한 적이 있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 학생은 말리는 전도사를 오히려 설득하고 반허락 하에 학생 선교사로 다녀왔었다. 필자에겐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 만들어서 열방을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살게 만들어야 할 복음 전도자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받들어 열방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꾼의 길을 막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다.

교회와 일꾼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다. 교회가 선교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마 28:18)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선교 방향이나 사역 방법은 다를 수 있겠으나 선교 사명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전도-세례-파송-교회 개척으로 삼았다.

교회는 열방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파송할 사명이 있다. 성도는 누구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평신도들은 열방의 선교 필드에 나가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능력은 교회 건물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능력들이다.

우리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단기선교로 파송받아 사역하는 평신도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 필자가 이면에 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지만도 미주에서 간 19명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선교팀들이 각기의 일정대로 와서 훈련받고 선교를 수행하고 갔다. 미주팀 19명은 모두 지역과 교회들이 다른 처음 만난 성도들이다. 3명이 목사였고 나머지는 평신도다. 그중 70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대가 3명, 60대가 3명, 50대 6명, 40대 5명, 30대 1명, 20대 1명 그리고 남성 5명, 여성 14명으로, 단기선교 무경험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전문 선교사들이 짜주는 조편성에 맞추어 3인 또는 4인이 한 팀이 되어 현지인 가정, 거리 전도, 권서사역 등 생전 처음 가는 나라의 지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타면서 맡겨진 지역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한다. 하루 이를 교육받은 현지 언어 책자를 사용하며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로, 마을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그렇게 2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방문하고 전도하면서 19명 5개 팀이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한 결과 그들이 찾아낸 MBB(무슬림 현지 그리스도인)가정이 4가정. 그들은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신앙 네트워크가 없어서 믿음이 사라져 간다.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교제하며 가정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아직은 예수 영접을 하지 않았으나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1명, 영혼이 8명, 영접한 이가 1명, 이스라엘에서 전도지와 신약 성경 권서 사역으로 2명의 복음 관심자가 전도지를 읽고 메시아니크 크리스천 전도 단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열매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평신도 단기선교팀들에 의해 매년 아랍의 20여 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아랍권의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쉽게 복음 증거 한 결과를 포함하여 지난 20년 무슬림이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된 수가 8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단기팀이 사역한 후에 그 나라 사이트 검색어 1위가 “예수야”가 된 적도 있다.

지금 아랍은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선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더욱 많아지는 꿈을 필자는 날마다 꾀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9)

과정을 즐겨라!

얼마 전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의 은퇴예배에서 낭송되어 주목을 받은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원래 유명한 시인데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석줄, 열다섯 글자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깊은 통찰력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꿈과 야망의 길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올라야 할 정상에 대한 목표의식 때문에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올라갈 길이 너무 바빠서 “꽃”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꽃, 가정이란 꽃, 보지 못합니다. 정상을 향하여 오르는 재미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정상을 차지할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인생의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아야 할 인생의 꽃을 보지 못합니다.

안철수 씨가 교수 시절 추천해서 한때 젊은이들이 앞 다투어 읽었던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천재 변호사이자 벤처 투자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경험을 토대로 실리콘 벨리 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 노하우를 나누며 인생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잘 나가는 벤처 기업가 랜디 코미사가 미안마에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을 소개합니다. 한 스님이 오토바이를 태워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스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태워 주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 목적지에 스님을 모셔드리고 잠시 쉬고 있는데 5분 만에 용건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태우고 돌아왔습니.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경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험을 하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완전히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에 맞춰 모셔다 드리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그리고 계절을 입은 산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과정을 즐기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분주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은 많습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삶의 목표에 집착하여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다 보니 인생길의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길 풍경에 가족들이 있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생길 풍경을 놓친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 지점에서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고 후회합니다.

과정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과정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로 과정을 중시하면 부정을 방지합니다. 부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부정을 쉽게 저지릅니다.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참혹

한 실패를 맛보는 것을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결국 인생을 망칩니다.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직한 삶을 지지해 줍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학한 자녀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둘째로 과정을 중시하면 인생이 소중합니다. 너무 결과 지향적이면 인생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작은 과정들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고, 일 년이 모여 십 년이 됩니다. 작은 과정을 소중히 여겨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때에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과정을 소홀히 여기므로 대사를 그리는 경우를 봅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큰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정을 즐기지 못해서 인생 전체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과정을 중시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과정을 즐기면 인생의 사사건건이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결과 지향적이면 산 정상에 도달해야 기쁩니다. 그러나 과정을 중시하면 올라가는 계곡, 비탈길, 층층계단, 거어오르는 비탈길 모두 의미 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마라토너는 출발부터 이미 의미 있는 여주를 합니다.

인생의 과정을 중시하면 희로애락 인생의 전과정(全過程)이 의미 있는 중요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과정을 중시하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므로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기독교일보

창립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은혜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TEL : 714) 446-1000, 1004, 6200, FAX : 714) 446-6207
은혜세계기도센터(365일 24시간 OPEN) TEL : 714) 446-1005
예배: 5:30am, 8:00pm, www.gracewpc.com
그레이스미선대학 (G.M.U, 신학교) TEL : 714) 525-0088
Miracle Center #305호 www.gm.edu
은혜기도원 TEL : 951) 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은혜교회 예배안내

Table with 2 columns: Service Name and Time. Includes: 성인주일예배 (vc),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교우부 주일예배 (MC), 영아~초등부, 중·고등부 (EM/KM), EM 대학부, 청년부 예배 (GWPC), 목요 8pm(MC203) 금요 7:30pm(MC Cafe) 주일 2pm, 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 Main Service, GWPC 은혜세계기도센터, 수요 성도양육 과정, 양육과정, 금요일예배 (VC), 금요성령침례, EM 대학부, 중고등부 (EM/KM), 능이교회 주일예배 (C&B), Jesus' Light (발발장예배) 주일예배 (MC)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Table with 2 columns: Station and Broadcast Time. Includes: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CHTV CH 18.7, SAN DIEGO RADIO KOREA, CHTV CH 56.9, 크리스천 해럴드 방송 AM 1650, KCBS CHICAGO AM 1590, CTS 미국(DIREC TV) CH 2092,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JSTV 미국전역 CH 668, CH TV 18.88, 라디오 코리아 AM 1540, CTS 미국(DIREC TV) CH 2092, 미주 복음방송 AM 1190, CTS 한국(금), YTN FM 100.3, CGNIV, SCA FM, 라디오 서울 1650

사람과 사람들 시온 오토 지길준 집사

LA 노숙자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기회'



시온 오토 지길준 집사의 일과는 새벽 3시 기도로 시작된다. 밤사이 추위와 싸웠던 노숙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덮힐 식사 준비를 마치면 5시다. 식사 후 뒷 정리를 마치면 오전 7시, 사업장 문을 열 시간이라고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음 속에서 지길준 집사(나성 순복음교회)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처음 만난 기자를 반갑게 맞았다. 악수를 건네며 맞잡은 그의 기쁨때 묻은 손에서 따듯한 온기가 전해졌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들어간 반평남짓한 그의 작은 사장실은 정비소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

은 허름한 책상 위에 펼쳐진 족히 10년은 넘어 보이는 그의 낡은 성경책. 환한 햇살에 비춰 그가 읽고 있던 요한복음 1장이 더욱 빛나 보였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 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놨다. 교회에 덕이 안될 것 같았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성경말씀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만큼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는 조심성을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것 같았다는 그의 말속에는 마지막 유언을 내뱉는 듯한 진실함이 담겨있었다.

그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믿음의 삶과 멀어졌다는 지적이었다. 지길준 집사는 특별히 노숙자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를 꼬집어 말했다.

지길준 집사는 "정말 어렵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두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재산을 지키고 놀리는데만 집착하고 있다"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시대의 외식적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가 LA의 모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앞마다 노숙자 텐트가 많아요. 그들이 왜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두드림이 아닙니까? 각 교회가 그들만이라도 돌보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깨끗하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이들을 선별해서 교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기, 더럽고 멸시받던 이들을 향해 교회가 문을 열어 하라는 것이예요."

LA 지역 교회가 운영되도록 들어오는 대부분의 헌금과 물질은 LA 지역에서 온 것인데, 대다수의 교회가 모양새 좋은 해외 선교에만 눈을 돌리고,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할 때는 흡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와 같았다.

나이 50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늦깎이' 예수쟁이 지길준 집사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 예수님 말씀에 두 손 들고 꼭 막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신앙은 늦었지만 하루하루 진리의 말씀에 심취해 교회를 섬기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이였다. 그러다 이제 60을 넘어 70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진리는 간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끝자락을 향한 마지막 경주에서 교회 안에만 갇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웃들이 보였다.

"노숙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책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문제로 보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LA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LA의 부흥을 소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온다. 그 역시 LA 부흥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부흥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다.

불신의 시대다.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들과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이 너무 크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일 것이다.

설교의 홍수라고 할 만큼 클릭 한 번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명설교를 들을 수 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고 했던가?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적이고 빛나는 명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동안 성도들이 설교 강단 위로 부터 들려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도 강단 아래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동욱 기자

장경동 목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LA 동문교회 신년 말씀 부흥성회 인도

최근 기독교 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가 LA에서 신년 말씀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동문교회에서 신년 부흥집회를 인도의 장 목사는 특유의 재치와 시원한 입담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과 성도의 구별된 신앙생활을 권면했다.

장 목사는 "인생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이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 목사는 "먼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간증을 남겼다"며 "우리 역시 천국에서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장경동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지나고 가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면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경동 목사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납파된 간첩을 비롯해 한국에서 포섭된 간첩 등 대한민국에 간첩이 만연하다. 심지어 언론계에도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다"며 해외 한인 교민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장경동 목사 신년 말씀 부흥성회는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마치고 참석한 성도들로 본당을 가득메웠다.

김동욱 기자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Building the KINGDOM of God

주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주의 나라 세워가는

가정

[마 6:10]

Building the FAMILY of God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2부 오전 9시 20분
3부 오전 11시 20분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 (KDC)]

- 1부 오전 9시 10분 2부 오전 11시 10분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청년·대학부

- YES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KDC Hyssop Hall)
영어청년부(NEXT): 주일 오전 9시 10분 / 오전 11시 10분
한어대학부: 주일 오후 2시(은혜채플)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20분(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KDC)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www.sarang.com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 772-7777 E-Mail: office@sarang.com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Tel: (714) 563-242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장로의 사명과 자격

디모데전서 3: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전적인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고 묵숨 바쳐 충성할 수 있겠다는 입장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세속적 기대와 꿈을 버리고 이권야심, 명분, 명예를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만족하며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교회에 묵숨이라도 기꺼이 바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는 본을 보이며, 순교해서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다시없는 삶의 의미로 알겠다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로 장로직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는 신앙인적 기준으로 분별해서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는 당회장 목사를 보필해서 양무리들을 보살피야 합니다. 그중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가기 위해 목사가 한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얼마나 생활에 옮겨 실천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지 살피는 일을 장로가 맡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애경사는 물론 병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대표자로 당회장과 함께 협조하여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다가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땐 당회장에게 보고하여 권면이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판단은 자신들을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만 장로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투표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내가 투표하여 세우는 자의 신앙이 내가 생각할 때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자이기 때문이고, 내게 부족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 지적받고, 권면받고, 위로받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감독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양떼들의 사생활을 신앙기준으로 보살피고 권면하고 지도, 책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잘못 살아가면서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한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첫째, 진리를 정통하게 올바르게 깨달은 자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근본적인 회개 역사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6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를 불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 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나타내신 이적기사를 다 참관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복음전도자로 내

보내실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항복하고 도망가더라는 간증의 보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배운 진리의 지식이나 훈련받은 경험으로만이 아닌 성령으로 무장되어 그 능력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그릇이어야 합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불구자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장로로 택하셔서 불러 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영력으로 가꾸어 다듬어 오신 일꾼이어야 재 구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어떤 입장보다도 장로라는 그 직분을 자기 묵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순교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장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할 줄 알며, 허영과 허세를 일삼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남을 구타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며, 아무와도 시시한 일로 함부로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믿음으로 신앙체질이 일치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범적인 가정 분위기를 이룬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냐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은 자여서도 안됩니다. 신앙은 연단을 통해 성화되어져 갑니다. 많은 연단을 거친 신앙인적은 백전노장(百戰老將)과 같습니다. 장로(長老)는 영어로 엘더(EL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늙은 어른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만 많은 늙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적으로 늙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탄인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스승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을 맡으면 교만하여 비인격적 처신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흠 없는 입교인이면 장로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 교회에서는 오래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7년 이상 된 자로 후보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또

한 마귀의 울무에 빠져들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가 되었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자들은 애초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 구분된 직책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 무리를 맡아 목회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1-4에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중략)...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는 장로, 즉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함께 장로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사명지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도했던 증인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고, 샅군과 같이 대접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영적인 소망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책임지는 목회자의 사명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양 무리를 함부로 다루지 말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받들어 살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7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중략)...저희 믿음을 본 받으라”했습니다.

히브리서 13:16-17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중략)...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하신 것은 영적인 사명 하나를 위하여 묵숨 바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불행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되어진 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

자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0:26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목사의 영적인 사명지도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마귀와 같습니다. 올바른 지도함에도 멸망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장로의 두 가지 구분된 직책 중 또 하나는 현재 교회에서 세우는 목사를 보필하기 위해 양 무리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1:5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목회하는 목사에게 여러 가지로 보필하는 감독자의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6-9절에는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중략)...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3:1-7의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당회장이며,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양 무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데 목적이 있고, 장로는 감독자로 목자를 협조해서, 그 목자가 가르치는 대로 지도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영적인 소망을 제대로 잘 가꾸어가고 있는지 살피서 권면이나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회장에게 고해야 하며, 당회장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량한 양떼를 바른 진리로 가꾸고 그들의 신령한 소망을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회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사명과 자격으로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망 받을 일없는 신앙인격자, 많은 신앙 경험의 연단을 쌓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장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오후 6시/동부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허러 오세요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10,500
\$5,900
TAX 및 배송료 포함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HAPPY NEW YEAR
202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남가주 명성교회,
정규용 목사 초청 부흥성회

남가주 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는 지난 26일, 본국 부산 새소망교회 정규용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공적 심판”(고전 3:10-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정규용 목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했다.

정규용 목사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당부했다.



남가주 명성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한 부산 새소망교회 정규용 목사(좌)와 정해진 목사(우)

정목사는 또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의식과 가식, 형식적인 모습이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임직식

LA 근교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창립 3주년 맞아 오는 2월 9일(주일) 오후 5시 감사예배와 은퇴 및 임직식을 거행한다.

이날 은퇴 및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를 비롯해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추대 장로, 은퇴 시무 장로, 은퇴 시무 안수 집사, 은퇴 시무 권사 등 총 40명이 직분자들이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기쁜우리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역 사회봉사와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해외선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문의: 818-662-0400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효사랑 시니어대학 2020년 봄학기 부에나 팍에서 개강



효사랑 선교회 시니어대학 강의시간 모습

효사랑 선교회(김영찬 목사)가 2020년 새해부터 부에나 팍에서 시니어대학 봄학기를 개강한다.

시니어대학은 2년제 과정이며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학훈대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김영찬 목사는 “한인 시니어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봄학기부터 부에나 팍에서 시니어 대학을 개강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시니어대학에서 배우고 훈련하여 커뮤니티

에 봉사하며 남은 인생이 더욱 멋지고 보람 있게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한인 시니어들이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이자 교회와 사회에서는 바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과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와 어른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시니어 대학 수강을 권고했다.

시니어 대학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노인들의 건

강과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과목들이 개설됐다. 특별히 올해는 효사랑 시니어 합창단이 구성되어 합창제를 가질 예정이며, 계절에 따라 꽃구경과 멕시코 양로원 섬김 선교로 사랑을 실천하는 커뮤니티 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2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강하며 등록비는 월 40불로 시니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전화: 562-833-5520, 714-670-8004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 보이게 합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인지도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N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국제개혁대 봄학기 개강 영성수련회 개최



2020 국제개혁대학교 개강 영성수련회

최인근 목사 “복음의 일꾼 되라” 주문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박현성 박사)은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학생 및 교수, 이사들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봄학기 개강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영성 수련회는 세계한인예수교

장로회(WKPC) 총회장 최인근 목사(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담임)가 강사로 나서 ‘가슴에 꿈을 품어라!’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주문했다.

국제개혁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과 연방정부 교육부 및 대학인준협회 CHEA 산하 기독교

대학 인준기관인 ABHE의 정회원 대학교이다. 또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준중 목사)와 세계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최인근 목사)의 인준 신학교로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과 편입에 관한 문의는 전화 213) 381-0081 이메일 office@irus.edu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통큰통독 일독 학교” 봄학기 개강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주해홍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LA와 OC에서 각각 진행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하나님 주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이 오는 2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LA와 OC에서 통큰통독 일독 학교를 연다.

LA 일독 학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남승우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며, 장소는 LA Face Mart 내 LA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1458 S. San Pedro St. #320호 LA)이다. 오후반은 정선희

전도사를 강사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LA 비전교회(520 S. Lafayette Park Pl. #200 LA)에서 진행된다.

OC 일독 학교는 김민섭 목사를 강사로 2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디사이플 교회(720 N. Valley St. suite F. Anaheim)에서 진행되며, 오후반은 정소진 전도사를 강사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12612 Buaro St. Garden Grove)에서 진행된다.

등록비는 150달러, 재수강자 120달러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문의 : (714)287-2854 우장훈 목사

OC 교협, 지역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연다

2월 15일(토) 오전 7시,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는 내달 15일(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부에나파에 소재한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OC 지역 정치인

선교단체장, NGO 단체장 및 성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OC 지역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일시: 2020년 2월 15일(토) 오전 7시-11시

대상: OC 지역 단체장 장소: Los Coyotes Country Club 주소 :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기부천사 연예인과 함께하는 LA 자선 골프대회

한인가정상담소 후원 목적, 내달 4일 리오 혼도 골프 클럽

2020 기부천사 1st US TOUR 연예인 자선 골프대회

정상급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드는 따뜻한 나눔 골프대회

후원 및 참가 문의: 213.382.1004

참가비 \$200

RIO HONDO GOLF CLUB 연예인 디너 파티
FEB. 04. TUE / 11:00 AM (CHECK IN) Oxford Palace

출입권 상금 포함 흥영회 Allstate

출입권 상금 \$30,000 및 장타상, 근접상 등 시상

TOURNAMENT 12:00 PM 티오프 샷경 방식 진행 다양한 시상 및 이벤트 경품

PLAYER (연예인 참가자)

김혜진, 박학기, 서범석, 우지원, 배기성, 송해나, 강세정, 이치현, 강성진

배우 윤해영, 양정아, 가수 박학기, 배기성, 모델 이선진, 이화선, 미스코리아 장아림 전 농구 국가대표 우지원, 개그맨 한민관 등 20여 명의 기부천사 연예인들이 엘리트를 방문해 남가주 교민들과 함께 한인 가정담소 후원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 및 디너파티를 갖는다.

내달 4일(화) 오후 12시 리오 혼도 골프 클럽(10627 Old River School Rd, Downey, CA 90241)에서 진행되는 자선 골프대회는 출입권 상금 3만 불을 비롯해 장타상, 근접상 등 다양한 시상 및 이벤트 경품이 마련됐다.

연예인들은 당일 저녁에는 옥스포드 팰라스 호텔에서 개그맨 한민관의 진행으로 자선 연예인 디너파티를 열어 행사 수익금 전액을 한인가정상담소에 기부할

예정이다. 골프 대회와 디너파티 참가비는 참가비는 연예인과 한 조가 될 경우 200달러, 그렇지 않을 경우 150달러다. 골프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저녁 디너파티에만 참석할 경우 100달러다. 후원 및 참가 문의는 JSJ 엔터테인먼트 213-382-1004로 하면 된다.

연예인 참가자 명단

배우: 강성진, 강세정, 서범석, 양정아, 원기준, 윤해영, 이정용, 한정원 가수: 박학기, 배기성, 유익종, 이치현, 한상일(노이즈)

모델: 성휘, 송해나, 이선진(슈퍼모델), 이화선(슈퍼모델), 장아림(미스코리아) 방송인: 우지원(전 농구 국가대표), 한민관(개그맨)

교회입니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 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한양사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일(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복음하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4차선)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O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0:50 중보기도회 (목) 오후 1:00
원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음-4번)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강화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리셋예배(델리엔) (소매매일)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열심 소.초.초 정진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성령의 진리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연합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았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새음 받아 할렐루야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1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찬양(도)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립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인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T.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363-5887

MP 센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00 / 9:00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집회 오후 7:45
588 Alhambra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626) 837-96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설맛이 한중일 3국 특별공연에 박수갈채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설날 큰 잔치 열어



특별공연을 선보이는 한국 전통무용단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 이하 시니어센터)는 지난 23일, 한국과 중국, 일본 전통무용단을 초청해 설맞이 특별 공연을 펼쳤다.

설날 큰 잔치에 참석한 300여 명의 노인들은 중국 사자춤과 일본 전통무용, 한국의 부채춤 등 3국 무용단이 선보이는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흥겨운 설 명절을 지냈다.

정문섭 이사장은 "처음으로 중국 일본 문화공연 팀을 초청해 한 무대에서 설 잔치를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내년엔 태국 베트남 등 참가국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은 "설을 맞아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감사하다"면서 "지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데이비드 류 LA시의원도 "기쁘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센터는 이날 공연과 함께 점심 식사와 떡을 무료로 대접했으며 신한은행 봉사팀 배식을 도왔다.

필라 안디옥교회 신년 축복 성회
및 제22차 세계 선교 사명자 대회 성료



필라 안디옥교회 신년 축복 성회 및 제22차 세계 선교 사명자 대회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는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성회 및 제22차 세계 선교 사명자 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선교 사명자 대회는 필라 안디옥교회 내 다섯 개 교회인 한어권 교회, 영어권 교회, 스페니쉬 교회, 다민족교회, 시티 교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파송의 시간을 갖고 선교지에 대한 소개와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선교대회 주강사로 나선 류응렬 목사(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는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으로 상징되는 세계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인 벨렐로 다함께 올라가자"고 설교했다.

호성기 목사는 "육함을 깨뜨리는 자가 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아

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인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한다"고 도전했다.

호성기 목사는 "단기 선교와 기도 후원,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회는 안디옥의 다섯 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적 비전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필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이 시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디옥교회는 25년 전 탄자니아로 4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천3백 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2019년에는 530명의 성도들이 국내외 선교지와 here and now 선교사로 헌신했다. 또한 22년 전 호성기 목사가 설립한 PGM 선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28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다.

김동욱 기자

이재서 총장과 함께 한
미 동남부 총신대 동문회 신년하례회



미 동남부 총신대 동문회

미 동남부 총신대 동문회(회장 박익준 목사) 신년하례회가 27일(월) 오전 11시부터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렸다. 신년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총신대 동문들은 특별히 이재서 총신대 총장을 비롯한 총신대 교수들, 타주에서 방문한 동문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예레미야 6장 16-17절을 본문으로 '옛적 길로 가자'는 설교를 전한 서삼정 목사는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회고하며, 그 길의 의미와 이를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결과를 본인의 경험과 간증을 담아

전해 잔잔한 은혜를 끼쳤다.

서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이 걸어간 길은 절대신앙과 절대순종의 길이었다. 옛적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바라봐야 한다. 언제나 목회자 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살펴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 인생을 마치는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선한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틀란타=김앤더슨 기자

스포츠 아이콘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과 우리 삶의 안식

스카티 스미스 목사, TGC에 기도문 게재

최근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그를 아끼던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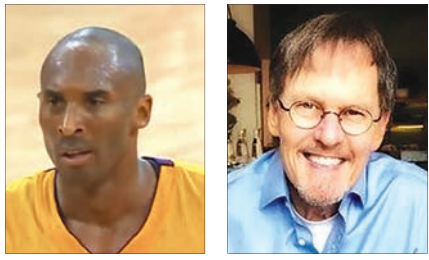
이와 관련, 스카티 스미스(Scotty Smith) 목사(프랭클린 소재 크라이스트 커뮤니티교회 설립자)는 27일 더가스펠 코얼리션(TGC)에 ‘한 스포츠 아이콘의 사망과 우리의 삶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게재했다. 기도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들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3-1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며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41세의 코비는 모든 이들이 평생에 걸쳐 얻을 수 있는 것들의 1000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오크나무보다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가깝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과 더 적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긴 값과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투자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부분과 걱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



코비 브라이언트, 스카티 스미스 목사. ©NBA 홈페이지 ©트위터

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함과 고통으로 여전히 놓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 중 무엇을 더 잘 해서 당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질문 등 어떤 것에도 점수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남긴 기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보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비길 데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편 코비 브라이언트는 26일 자신의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 중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날 헬기 사고로 그와 친딸을 비롯해 총 5명이 사망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LA 레이커스에서 뛰며 우승컵을 5번이나 들어올린 바 있다.

강혜진 기자

“UMC, 동성애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어져”



지난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에 속한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UMC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고 밝혔다.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웨슬리안언약협회(WCA) 회원인 조셉 F. 디파올로 목사는 “UMC와의 관계를 그만 유지해 왔지만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UMC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 교단 내 논쟁이 극심했으며 결국 지난해 2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부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은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콜’이라는 계획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UMC를 탈퇴하고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2천5백만 달러(약 290억원)를 받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된다.

디파올로 목사는 WCA 웹사이트에 올라간 칼럼을 통해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UMC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면서 “진보 성향의 성직자와 교회는

징계 조약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 계획안이 “세계적인 웨슬리안 운동의 활기차고 새로운 출입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P는 “UMC는 현재 동성애가 기독교 교육과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가 동성결혼을 축복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 내 많은 진보 성향의 성직자들이 이 조항에 굴복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은 교단 탈퇴를 논의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 계획안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WCA 뿐만 아니라 UMC 내 성 소수자 지지 그룹인 ‘화해사역네트워크’(RMN)도 이 계획안을 지지하고 있다. RMN은 이날 초 “UMC의 광범위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UMC는 오는 5월 5일부터 15일 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교단 분리에 관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진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단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단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단
KM찬양예배 오후 2:00 분단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단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단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심으로 오묘영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애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평화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예배(EC) 오전 9:30
영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으로 열방을 열자는 새생명체 ALL IN Jesus 4-계 20-22는 복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찬양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셋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w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코루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생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7시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광화문 집회에서 연단에 선 전광훈 목사(우)와 김문수 전 지사(좌). ©나얼아TV 캡처

자한당과 결별 선언
"김문수 중심으로
200석 만들어 文 끌어낼 것"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1월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를 정치세력화해, 오랜 염원인 기독교 정당(기독교자유당) 원내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등 3대 악법이 통과되는 것, 해리스 미국 대사 콧수염 뽑기 집회가 열리는 것 등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싸움도 못하면서 다시 공천을 받아서 4년 더 국회의원하려고 하느냐? 이대로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기도하다가 큰 결단을 내렸다. 총선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대장 삼고 광화문 광장을 정치화시켜, 200석을 만들어 문재인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 안에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3대 악법 통과에 대해 "한일 합방과 똑같다"며 "자한당 108명 국회의원이 적은 숫자인가? 민주당은 70석 있을 때 마음대로 다 했다. 그러나 지금 자한당에는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연단에 선 김문수 전 지사도 "한강

의 기적을 갈아먹는 기생충 집단인 주사파가,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통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집권했다"며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지금의 자한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한당이 안철수와 유승민 등과는 통합하자고 하면서 광화문에는 나오라 해도 안 나온다"며 "중도로 확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3년간 이곳에서 눈비를 맞으며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을 빼고 대통령이 가능하냐? 태극기와 십자가를 빼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 그레 놓고 과반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런 거짓말에 속을 수 없다. 문재인과 확실히 싸울 정당이 필요하다"며 "자한당 의원들이 세비를 타고 보좌관을 거느리면서 문재인과 사이 좋게 잘 지내고 날치기에 당하는 것을 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4.15 대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집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을 다시 설득해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지난 1년간 재발 같이 하자고 외쳤으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갔다"며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오는 2월 29일 집회 때 작년 10월 31일보다 10배 더 모이자.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설 당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적지 않은 인파가 집회에 참석했다.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도 이날 연설에서, 정규재 대표(펜앤드마이크)도 다음 날 칼럼에서 자한당을 비판하며 광화문 집회의 정치세력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역시 이날 연단에 섰던 김동길 교수의 경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남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승경호 기자

'김문수 신당'
전광훈 목사 기독교자유당과의
관계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 창당된다. 당명은 '자유대연합'이 유력하고, 초대 당대표는 김 전 지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년 간 자유한국당원"이었다는 그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사파와 투쟁하지 않는다"며 최근 결별을 선언했었다.

신당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갖는다. 뜻을 같이 하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이 당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후원만 한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그 동안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왔다. 지나 21일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에도 그와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신당과 기독교자유당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전 지사는 27일 본지와 의 통화에서 "기독교자유당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라며 "신당은 타종교인과 일반 국민까지 대상으로 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를 후원하지만, 기독교자유당의 그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광장의 투쟁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이 당을 발판으로 자유대연합과 (4.15 총선에서의 보수·우파) 후보단

일화가 목표"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한 편,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주사파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그 원칙은 '광장에서! 반문재인 투쟁 가운데서!'다. 신당은 반문재인·반주사파 투쟁에 앞장설 것이고,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일 전국연합예배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를 다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 몸을 녹여서 맛을 내자는 것"이라며 "빨갱이 기생충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도지사도 두 번 했다. 아무 정치적 욕심이 없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도 "어차피 내가 여기에 총대를 메었으니 당을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할 수 없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저는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정규용 목사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존할 수 없어”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신앙, 자유민주주의 수호위해 한반도 공산화 대적해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차 LA를 경유한 정규용 목사(부산 새소망교회)를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정규용 목사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실제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 매일 주위와 싸우며 노상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다.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기도로 저항하는 분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것 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더 부패하고 진실을 감추고 있다. 평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하고 공산화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민족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볼 수 없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공산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산화, 왜 우려하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한 곳이라도 있나? 역사적으로 공산화 운동에는 ‘종교말살’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이요 반신론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운동이다.

소련이 공산화된 이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된 사람이 2천700만 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정규용 목사는 “현 정부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끌고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파괴시키고 십자가를 꺾어버렸다.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보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해 백성들을 숙청하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다.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확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침하지 않았나? 북한 공산주의자들 역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지금도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야욕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화를 대적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위기를 맞게 된 데에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나?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데, 세상을 깨우고 진리의 빛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한국 교회가 많이 깨달았다.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국민이 방종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현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 공산당의 6.25 침략 전략을 옹호하며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감행한 북침이라고 가르치며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제국주의자라고 가르친다. 마치 미국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안 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처럼 가르친다.

바른 역사관 가져야 교회와 신앙 지킬 수 있어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라.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미국이 일본의 힘을 무력화시켜 우리나라가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철수했다. 우리나라에 민중시위가 일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 1950년 바로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됐다.

우리가 아는 주사파 사상이란 너무나 무서운 사상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주사파와는 성경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역사를 모르니 그들

의 주장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역사가 바로 심겨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교회와 신앙도 지킬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가 바른 역사관의 터 위에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한다. 좌우를 떠나서 기독교와 교회가 위협을 당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역사의 현상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기독교다. 순교의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 평화적이고 모두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절대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 불신자도 애국 시민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저항하는데...”

-세계 선교 비전으로 중국에서 신학교도 운영하셨다.

“조선족과 한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다가 최근에 쫓겨났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는데 중국 공산당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시켰다.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 용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신학교육도 예전처럼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정기적으로 들어가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정규용 목사는 1992년 부산 새소망교회를 개척해 28년째 담임하고 있다.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2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 선교와 더불어 지역 선교를 위해 교회를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김동욱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쫓아내요, 진리는 모든 진리를 이길 것입니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영)과 수록된 '빛은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수교증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먼동생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gbwmw.com/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세태에 맞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직이나 다 돌려받고 오세요~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e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의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424-257-0691/0692 / Fax: 424-257-8136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CE), 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실수가 넘치는 식당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감자탕과 순두부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감자탕이 나오고 순두부와 함께 나오는 돌솥 밥은 나왔는데, 도무지 순두부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깜빡하신 것이지요. 뒤늦게야 확인을 하고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순두부 찌개를 기다리며, 문득 예전에 읽은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
일본에 있는 이 식당은 매번 실수가 넘칩니다. 라면을 시키면 우동이 나오고, 돈가스를 시키면 새우가스가 나옵니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은 데도 항상 손님이 북적대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맛 집'입니다.
이 식당은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할머니들을 보며, 모두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식당에는 언제나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납니다.
음식 맛도 좋지만, 그 이해와 배려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님 누구하나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하고,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이해함으로 표출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지요. 서로의 실수와, 모자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고,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듯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면 승리합니다

코끼리는 다 자라면 대개 키가 3-4 미터에 이르고, 코에서 꼬리까지 길이는 7미터 정도며, 몸무게는 5톤이 넘습니다. 이 정도의 다자란 코끼리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자그마치 500킬로그램이나 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코끼리는 웬만한 나무 정도는 땅에서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런데 서커스단의 다자란 코끼리는 도대체 왜 그런지 작은 말뚝에 묶여있습니다. 코끼리를 새끼 때 말뚝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로프를 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코끼리는 아예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자란 코끼리는 얼마든지 쉽게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말뚝에 계속 매어있는 것은 그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도, 아직 옛 사람의 생각에 묶여있으면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현실 이미지와 상상 이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

에 없어도 계속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거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없는 데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생각과 만남의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나나를 매달아 보관하면 바나나는 나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심심함이 오래 유지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뇌도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동안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생각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을 상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by self, But by Grace' 나로 살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별

불일 없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첫째는 약한 자를 사용해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약한 자를 사용해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잘난 자기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며 나, 나, 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주목하고 또 참아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쇠퇴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가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고 넓어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를 생각하므로 이 땅과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건훈련(Quiet Time)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경건훈련 Q.T는 어떤 운동일까요? 한국교회의 대표적 경건훈련을 우리는 Q.T(Quiet Time)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의 시간(Quiet Time)이란 기도, 개인 묵상, 하나님께 예배, 혹은 성경연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영적 활동들 가운데서 정규적으로 개인이 갖는 시간을 서술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20세기 개신교 즉 대부분 복음주의 기독교인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건훈련 즉 Q.T(Quiet Time)의 문체점은 역사성의 모호함과 더불어 신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건훈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경건이라는 말을 그의 영적 아들이자 조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차원에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할 할 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 8절에서 명명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중에서 주목할 헬라어(즉 그리스어) 두 단어는 ①<유세베이아>와 ②<꿈나조>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①<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표해야 하는 <경건 Piety>, <경의 Reverence>, <충성 Loyalty>, <하나님을 경외함 Fear of God>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②<꿈나조>라는 단어는 원어로 해석하면 벗은 채로 훈련한다, 혹은 훈련하다, 연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벗은채로 훈련”>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러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은 각 도시 국가마다 레스링을 위한 시설들이 있었고 거기서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꿈나조 Exercise Naked>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세베이아>는 모든 경건으로 해석되었고 그리고 <꿈나조>라는 단어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연단> 따라서 경건을 연습한다는 말이 나 경건을 연습하여 경건에 이른다는 말은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표현은 경

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말의 표현이 보다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경건 훈련>에서도 반듯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건을 연습하여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훈련함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경건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과 경의, 충성과 경의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와같은 의미를 사도바울은 <“꿈나조 exercise naked”>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건운동이란> 우리가 자신의 옷을 벗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야 할 경건과 경의, 충성과 경의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복수로 쓰이게 되면 “Godly acts(경건/거룩한 행동들)로 해석 되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심과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거룩할 삶과 행동들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건운동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의심과 함께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 2020년 한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니트륨 Na : Cl	니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515g
\$30 +Tax

중금속
간수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 소매 판매합니다.

Westmoreland
Virgil
Wilshire Blvd
Wilshire Pl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Lowers the Risk of Alcoholism or Phlebotomy or Stroke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과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ROPE CENTUM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청교도 이민 400주년 |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1편>



Mayflower in Plymouth Harbor, by William Halsall ©wikipedia



1621년 '첫 추수감사절', 진 레온 제롬 페리스, (이미지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청교도의 유래와 언약도”

1. 영국의 청교도들, 즉 퓨리탄(Puritans) 또는 까다로운 자들(Precisians)

영국 왕 <헨리 8세>는 부인인 <캐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혼을 하려고 교황인 <줄리우스 2세>에게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534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발표했다. 이것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헨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영국의 교회는 영국 왕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지지하는 자는 모두 처형되었다.

<헨리 8세>는 수도원과 종교 기관을 폐지하고, 그 재산을 영주나 귀족들에게 판매하였다. 즉 종교 기관들이 평신도들의 관리 아래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로마의 간섭을 배제하고 라틴어가 아닌 영어 성경이 영국 내 전국 교회에 비치되는 것까지는 허락되었으나, 영국 내에서 교회를 개혁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았다. 성경 번역자인 <윌리엄 틴데일>은 화형 당했으며, <존 후퍼> 등의 개혁자들은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피신해야 했다.

<헨리 8세>가 죽고 8세의 어린 아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다. 외삼촌 <발레리 경>이 섭정을 하면서,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와 함께 종교 개혁을 추진했다. <칼빈>과 <멜랑히톤> 등의 영향을 통하여, 영국의 교회는 개혁의 물결을 타는 듯 보였다. 일부 불만들이 있었으나, 1549년에 출판된 <공동 기도서>에는 종교 개혁 사상

이 분명히 나타났으며, 교회에서 성화가 사라지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헨리 8세 때에 외국으로 피신했던 <존 후퍼>는 귀국하여, 성직자의 복장을 로마의 잔재로 비판하는 이른바 <복장 논쟁>으로 개혁에 힘을 보탰다.

<에드워드 6세>가 결핵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죽자, 이어서 유명한(?) <피의 메리>(Bloody Mary)가 왕위에 올랐다. <메리>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며 반동종교개혁을 후원하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했다. 아니나 다를까 <메리>는 종교개혁 운동을 쓸어내고 로마 카톨릭을 복구하려고,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나 사정없이 “피 튀기게” 처형하였다. 종교 개혁자 300명이 “Bloody” Mary에 의해 스미스필드에서 처형되었고 800명의 개혁자들은 대륙으로 피신하였다. 처형장에서 <휴 라티머>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리틀리 경, 담대하시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어 불타게 될 것입니다.”

<피의 메리>가 1558년에 죽자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 사이의 갈등을 보아온 <엘리자베스>는 종교적으로 중용정책을 폈으나, <헨리 8세>가 수도원과 종교 기관을 해체하여 영주나 귀족들에게 팔아버린 후로 십일조나 헌금이 부족하자, 영주들이 가진 교권을 감독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다. 당연히 이것은 귀족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귀족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편을 들게 되었다.

상황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피의 메리> 치하에서 대륙으로 피신했던 800명의 개혁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위스의 취리히, 바젤, 제네바 등지에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목사로 활동했으며, <존 칼빈>이나 <하인리히 불링거> 등의 개혁자들과 교제하며 개혁 사상을 뿔뿔히 퍼뜨려 갔다. 이들은 전통적인 권위와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도전하는, 신약 성경을 원어로 배워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대로 예배를 세우고, 생활에 적용하고자 간간하게 따지고 까다롭게 구는 “까다로운 자들”(Precisians)이었다. 이들 까다로운 자들이 귀국하면서 “청교도(Puritans)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장로교 국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1528년 <패트릭 해밀턴>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정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고, 위대한 개혁자요 전사인 <존 후스>도 1572년에 사망했다. 이어서 <앤드류 멜빌>이 왕 <제임스 1세>에게 도전하며 개혁을 이끌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의 길은 멀었다.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아버지 <제임스 1세>에 이어 왕이 된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 전제군주적인 정책을 펼쳤다. 장로정치를 부인하고, 대주교를 세우고, 성공회적인 교회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1637년 7월 23일 에딘버러의 자일스 교회에서 성공회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찰스였다. 장로교가 서기도 전에 무너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달랐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의 거센 항의는 성공회 예배를 무산시켰고, 이를 발단으로 <찰스 1세>에 대한 저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듬해에는 장로교도들이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 모여서, <국가계약>을 맺었다. 이들을 <언약도>(Covenanters)라고 부른다. 장로교도들은 <찰스 1세>의 정치적 종교적 학정에 대항하여, 장로교회와 장로정치와 장로교 예배를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기로 언약-결의하였다. 이것은 왕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찰스>는 당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함께 다스리는 왕이었다. 왕이 스코틀랜드와 싸우려하였으나,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장로교도들과 함께 왕에 대항하였다. 포악한 전제군주 <찰스>도 결국 죽었다. 당시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던 <올리버 크롬웰>은 성공회도 장로교도도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주의를 지지하여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크롬웰>도 죽었다.

<크롬웰>로 인하여 수면 위로 떠오른 앵글로 색슨족과 스코트족 사이의 깊은 민족적 감정 때문에 스코틀랜드인들은 1660년 <찰스 2세>를 귀국시키고, 그를 왕위에 앉히고, <국가계약>에 서명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실수로 경솔함이었다. <찰스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국가 계약>을 버리고 성공회를 지지하고 장로교를 억압하

였다. <찰스 2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장로교도들은 <국가계약>을 다시 확인하고 <찰스 2세>에 결사 항전을 개시하였다. <계약파> 또는 <언약도>라 불리는 그들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다. 최대의 위기로, 마지막 고비였다.

<찰스 2세>가 죽고, <제임스 2세>를 이어서 메리와 윌리엄 공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회복시켰다. 마침내 1707년 5월 1일부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국가가 되었다.(영국은 감독교의 국가가 되었다.)

*참고 문헌

1.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2. 김의환, 김의환 전집 1 기독교회사 (서울, 종신대학교 출판부, 2008)
3. 오덕교, 종교개혁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14)

박중승 목사
예림교회 동역목사
WIW Ministry 사역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일보와 WI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터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519 + 항공요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99 + 항공요금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WIW Ministr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공미보고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만 사그떨어지 영퍼주기엔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싱싱여행클럽 추억만들기**

코러스투어클럽
 Korus Tour Club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카바존 아울렛” 여행편

문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99
 팁(\$10) 별도

지명	시간	2월 22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LA	08:30	-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기독교일보 집결 및 출발(월셔BL+월셔PL)	대형 고급 버스
조슈아 트리 히바치 뷔페	11:00 12:30	-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투어] - 관광 후 식당으로 이동 및 도착 후 중식	
카바존 아울렛	14:00 16:00	- 카바존 아울렛 도착 및 [아울렛 쇼핑] - 관광 후 로스앤젤레스로 출발	중식 : 히바치 뷔페
LA	18:00	- 기독교일보사 도착 및 해산	

포함 사항 - 국립공원 입장료, 버스 요금, 히바치 뷔페 식사 요금, 제반적인 비용 SVC일체.
 불 포함 사항 - 선택관광 투어(케이볼카) \$25, 모든 팁(기사,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카바존 아울렛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미드웨이> (下)

미드웨이 해전, 신앙의 자유와 전체주의의 격돌

영화 <미드웨이>는 하와이 진주만에 이어 하와이 북서쪽 미드웨이까지 미국 본토 침략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을 격퇴하는 미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미군은 전력상 절대 열세에 있었지만, 암호 해독을 바탕으로 기적을 이뤄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잡게 됩니다.



일본 연합함대 항공모함을 폭격하는 미 급강하폭격기대대의 SBD 돈들리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미드웨이 해전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는 동아시아적 전체주의로 인해 억압받던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되찾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영화 <미드웨이>는 <인디펜던스 데이> 시리즈 등 재난영화 전문 롤랜드 에머리히(Roland Emmerich) 감독을 필두로 에드 스크레인(디베스트), 패트릭 윌슨(레이튼), 루크 에반스(맥클러스키), 아론 에크하트(지미 돌리틀), 우디 해럴슨(니미즈 제독), 아사노 타다노부(야마구치), 니 조나스(브루노), 키인 존슨(제임스 머레이), 루크 클레인뱅크, 맨디 무어, 대런 크리스 등의 초호화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제국주의와 미드웨이: 태평양 연안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격돌

지난주 개봉한 영화 <미드웨이>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그 긍정적 반응 가운데는 이 영화가 '일본의 패권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는 평이 자주 목격된다.

이런 평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역사 인식이 세계사적 차원으로 볼 때 매우 뒤쳐져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독소(독일-소련) 전쟁이 벌어진 유럽 동부전선을 제외한 제2차 세계대전의 나머지 전선, 즉 유럽 서부전선과 태평양 전선의 전쟁은 단순히 연합군 대 독일, 미국 대 일본의 전쟁이라고만 볼 수 없었다.

이 두 방면의 전쟁은 본질적 차원에서 커다란 문화 충돌로 규정할 수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의 경우 이런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물론 미국과 일본, 양측 모두 당대 세계 질서를 좌우하던 제국주의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서구적 개인주의와 자유 사상을 바탕 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국이었다면, 일본은 동아시아 특유의 전체주의적 과시즘을 바탕 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국이었다는 점에서 양측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18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건국 이전부터 아메리카 이미 대륙 식민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일례로 미국 독립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

메리카 식민지 개척민들이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서부로 계속해서 영역을 넓히려 한 데 있었다.

영국 본토 정부는 이런 시도를 금지했다. 식민지 개척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프랑스인들이 점거하고 있던 북아메리카 대륙 중부를 침범하면, 전쟁이 발생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사람들 대부분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프랑스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들의 거주지와 농경지로 삼고자 하는 열망에 넘쳐 있었다.

서부로 진출하려는 미국의 열망, 이는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 1846년의 멕시코-미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서부 진출을, 변명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상을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고 불렀다.

미국의 '명백한 운명'은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았다.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아메리카 간섭을 막는 사이, 제국주의 미국은 서방의 태평양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일본의 쿠로후네 사건(페리 제독의 원정, 1853년), 조선의 신미양요(1871년), 하와이 점령(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괌, 필리핀 점령(1898년), 사모아 점령(1900년), 중국 일부의 반(semi) 식민지화 등, 태평양 전 지역을 미국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명백한 운명'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이었다. '대동아 공영권'을 제국주의 이상으로 내걸었던 일제는 조선과 대만, 만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1938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심기를 거스렀다.

당시 미국은 중국 내부의 경제권과 이권사업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가 전쟁을 통해 이를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쓰라-태프트 협약(1905년)을 통해 일제의 팽창을 조선과 대만까지 제한하려 했던 미국의 대일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기독교 선교와 미드웨이: 미국 대 일본이 아닌, 신앙의 자유 대 전체주의

여기까지만 보면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특정 제국주의 세력들이 격돌한 전쟁이 분명하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미드웨이>의 일본 연합함대 패전 장면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한국인들의 기쁨을 후련하게 해주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 미-일 관계사(史)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태평양 전쟁은 개인의 삶의 자유와 인권을 명목 상으로나마 옹호하는 자유민주 세력과 독재자 중심의 전체주의 과시즘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격돌로도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 차원에서는 이런 규정이 더 적절하다.

그 증거는 전쟁의 결과로 확인된다. 태평양 전쟁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전쟁의 승기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일제로부터 해방된 태평양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는 미국과 서방 열강의 정책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된다.

반면 유럽 동부전선 독소 전쟁의 경우, 미드웨이 해전과 비슷한 시기인 1942년 8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전투로 인해 전쟁의 승기는 소련 편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1945년 독소전쟁이 종결된 후 동유럽 전역은 공산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인해

고통받게 된다.

이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 힘입어 해방을 맞이한 태평양 연안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는 기독교 선교의 기회가 활짝 열린 반면, 공산 전체주의에 잠식된 국가들,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은 기독교 선교의 길이 완전히 막혔을 뿐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조차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영화 <미드웨이>에서 미국의 승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일본을 쳐부숴'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전체주의적 과시즘이나 공산 전체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 자체도 포함되는데, 천황조차 무시하며 자국민과 식민지인 모두를 단순히 병력자원 취급하던 당시 일본 군부의 광기 어린 전체주의로부터 일본인들을 해방시키는 전기가 미드웨이 해전 때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자체를 만약의 근원으로, 무조건적인 악의 축으로 단정하는 입장에서 <미드웨이>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승리가 큰 의미를 가진 이유는 당시의 일본이 동아시아적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제국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패배한 측이 '일본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혜택과 온전한 선교 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악의 근원은 언제나 독재자, 국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과도한 집단주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집단주의, 광신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의 위협은 태평양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공산독재 국가를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공산 전체주의의 국가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신앙에 대한 집단주의 사상의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금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기독교 성경의 개작을 추진하고 있다. 중화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맞게 성경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개편하고 중국 내 교회들이 이렇게 개편된 성경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여러 방면으로 친북,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시국인 만큼, 기독교인들의 역사인식 역시 단순히 일본에 적개심을 갖는 수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을 배교하게 만든 사상적 배경은, 일본의 신토사상 자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뿌리깊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일본이 아닌 북한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실상은 소수의 독재자들과 집권세력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즉시는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강요될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미드웨이>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적 안목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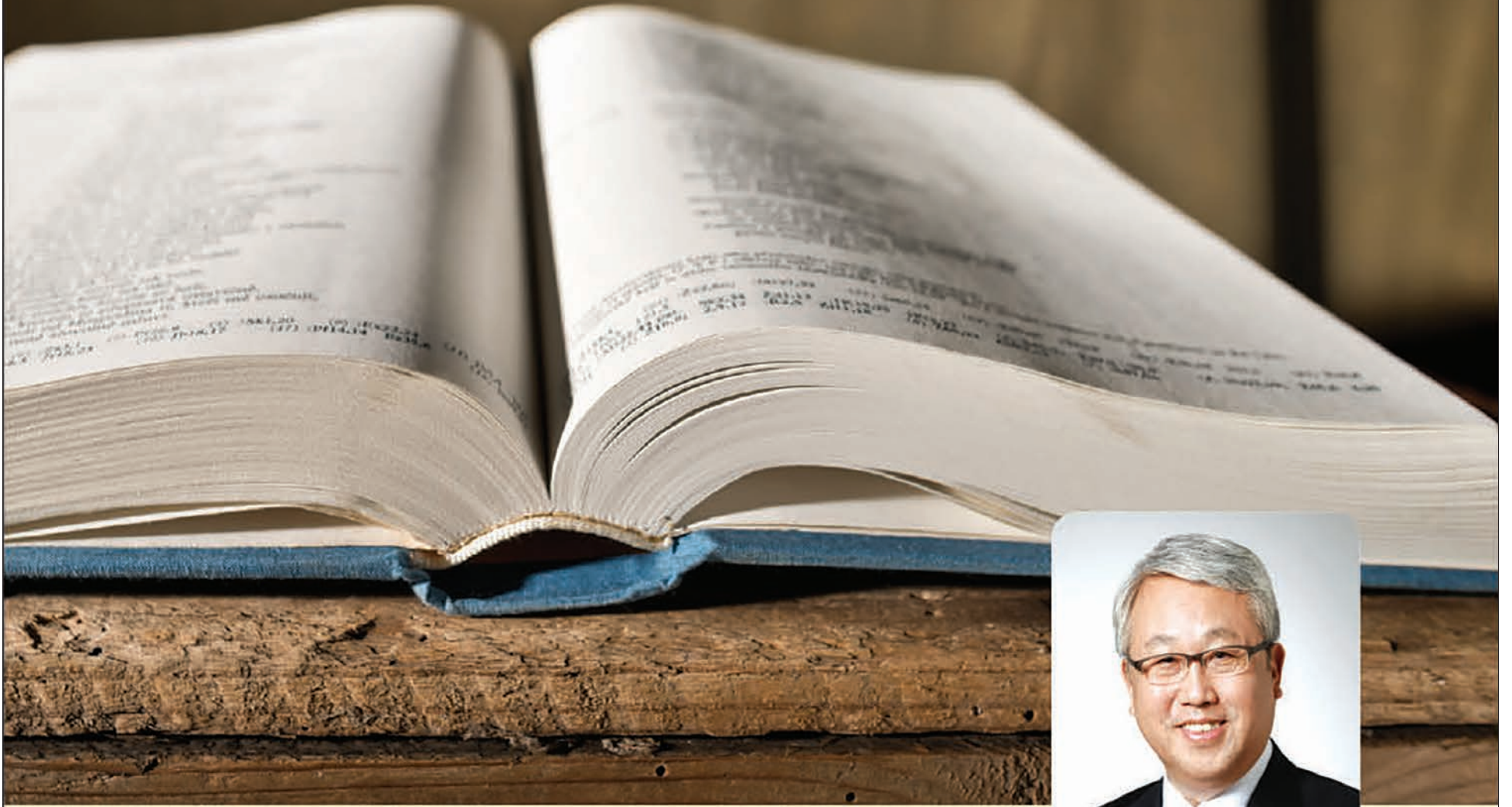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P · R · E · A · C · H · I · N · G C · L · I · N · I · C

2020년 포스트모던 시대의

강해설교클리닉 및 부흥회

이동원 목사 보너스 강의: 설교자를 위한 사모의 바람직한 역할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GMN 대표
지구촌교회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8PM - 26일(목) 12PM**장 소** : LA 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강 사**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특강강사** : 박성근 목사 (새누리교회 담임목사)**대 상** :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등록비** : 일인당 \$150 / 부부 \$200 (2월20일까지 등록시 일인당 \$130 부부 \$180)
(선교사/신학생은 일인당 \$100) (점심 및 교재 포함)
(payable to - Preaching World)**숙 박** : Rotex Plaza Hotel - 호텔은 2인 1실 기준으로 일인당 50불 (아침식사와 택스 포함)
(등록비와는 별도 - 개별적으로 예약, Tel. 323-734-1001)**부흥회주제** :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룯기의 로맨스

* 3/23(월) / 8PM 고통의 치유 (룯기 1:20)

* 3/24(화) / 8PM 은혜의 새 아침 (룯기 2:13)

* 3/25(수) / 8PM 찬송의 드라마 (룯기 4:14)

문의 :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404) 579-4570 / revkwon21@gmail.com심윤수 목사 (미주침례신문 사장)
(678) 677-9578 / pysshim@gmail.com

공동주최 : 프리칭월드 / 미주침례신문